DBpia

원효 저술에 대한 번역 현황과 그 연구사적 가치 고찰: 불교학술원 간행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의 의의와 연계하여

The Translation State of Wonhyo's Writing and Its Research Value: Connecting with the Meaning of 100 Volumes of Hangeulbon Hangukbulgyojeonseo Published by Academy of Buddhist Studies

저자 (Authors)
한명숙
Han, Myung-Sook

출처 (Source)
불교학보 95, 2021.6, 33-56 (24 pages)
BUL GYO HAK BO 95, 2021.6, 33-56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1298

APA Style
한명숙 (2021). 원효 저술에 대한 번역 현황과 그 연구사적 가치 고찰: 불교학술원 간행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의 의의와 연계하여. 불교학보, 95, 33-5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8 10: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http://dx.doi.org/10.18587/bh.2021.6.95.33

원효 저술에 대한 번역 현황과 그 연구사적 가치 고찰*
: 불교학술원 간행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의 의의와 연계하여

한명숙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

Ⅰ. 지금, 여기에서, 왜, 또 원효인가?
Ⅱ.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의 번역 및 간행 현황
1.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
2.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
3.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에 대한 주석서
Ⅲ.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 번역서의 특성 및 연구사적 가치
1.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
2.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
3.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에 대한 주석서
Ⅳ. 한국불교 고전문헌의 번역, 그 남겨진 과제

* 본 논문은 2021년 1월 12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한글요약>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간행 혹은 간행 예정인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중 원효와 관련된 저술의 특성과 의의를 조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먼저 원효 번역서 간행의 현대적 의미를 그 저술을 관통하는 보편적 사유체계인 화쟁(和諍)에서 찾고 원효의 화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 곧 "왜, 화쟁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았다. 그 결과 중죄를 짓지 않는 길이고 번뇌장과 소지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화쟁의 불교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관련 저술 11권을 그 성격에 의해 세 범주로 분류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밝혔다. 첫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로 총 9권으로 간행되었다. 원문의 철저한 교감, 전문적인 각주, 새로운 문헌 발굴 성과의 반영(『판비량론』), 인도불교·한국불교 전공자의 연구성과의 반영(『이장의』) 등에서 기존 번역서와 차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예를들어 『범망경보살계본사기』의 경우 저자와 찬술시기에 대한 이론(異論)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서의 번역을 계기로 최유진과 한명숙에 의해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의 저술도 1권 간행되었는데 『집일 금광명경소』가 그것이다. 현재 전해지지 않는 『금광명경소』를 역자가 직접 원문을 편찬하고 번역하였다. 본서는 향후 원효의 불신론(佛身論)에 대한 연구, 신라의학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원효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를 번역한 책도 1권 간행되었는데 『지범요기조람집』이 그것이다. 본서는 『보살계본지범요기』에 대한 신엔(眞圓)의 주석서이다. 본서는 『보살계본지범요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쟁점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확장적 연구의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번역자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전해지지 않는 한국 학승의 저술을 발굴해야 하고 아울러 『집일 금광명경소』와 같은 집일본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국 학승 찬술설이 제기된 문헌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그 확정적 지위를 확보한 저술은 『한국불교전서』에 입장(入藏)해야 한다. 넷째, 한국학승에 대한 동아시아 학승의 주석서를 발굴하고 연구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주제어 :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원효, 화쟁의 불교적 의미, 『범망경보살계본사기』, 후쿠시 지닌, 『집일 금광명경소』, 『지범요기조람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Ⅰ. 지금, 여기에서, 왜, 또 원효인가?

2002년 발표된 글에 따르면 당시까지 간행된 원효 관련 논문은 대략 700여 편이고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행본은 50여 권이 출간되었으며 학위논문은 1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1] 또 2013년 발표된 글에 따르면 2003년부터 당시까지 한국고대불교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총 21부인데 이 중 7부가 원효와 관련된 것이다.[2] 이러한 연구현황은 원효 탄생 1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원효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큰 비중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효의 저술은 100부가 넘고 그 내용은 특정 학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경론을 두루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저술의 방대함은 그가 불교문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창출하였음을 보여주며 현재 전해지는 21부의 저술에서 실제로 이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특정 사상가가 1400여 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단지 그 저술의 방대함이라든가, 그 글의 탁월성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원효와 관련된 방대한 연구서에서 많은 학자들이 원효의 저술을 관통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사유체계, 혹은 보편적 화두를 화쟁(和諍)이라고 평가하였고 필자 역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또 이것이 바로 원효사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되살아나는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효는 직접적으로 화쟁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화쟁하는 삶을 살고 화쟁하는 학문을 행함으로써 화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화쟁하는 삶은 모든 사람을 두루 포용하는 무애(無碍)라는 그의 삶 속에 잘 드러나고 있고 화쟁하는 학문은 모든 사상을 두루 포용하는 정신으로 그의 저술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든 법이든 결국 불이(不二)의 장(場)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원효의 화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쟁하는 삶이라든가, 화쟁하는 학문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 “왜 화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으로 서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원효 자신이 “화쟁을 하지 않는 자, 중죄이다.”

1) 고영섭,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p.15.

2) 고영섭, 「한국 고대불교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3), pp.406-40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라고 단언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후기 저술로 알려진『보살계본지범요기』(이하『요기』로 약칭)는 원효가 동시대인에게 "지금, 여기에서, 누가, 정말, 죄인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다. 본서에서 원효는 계율을 범하는 문제를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까지 세분하여 서술하고 그 마지막 지점에서 불교의 구성원으로서 불법 내부에서 불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제시한 계율의 차별적 양상을 모두 고려할 때 중죄, 곧 가장 무거운 죄를 짓는 이들이라고 판정하였다. 특히 혜학(慧學)에서 "유견(有見, 增益執)과 공견(空見, 損減執)에 빠져서 각각 자신만 옳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라고 한다면 중죄이다."[3]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견해에만 집착하여 타인을 비난하면서 화쟁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중죄에 해당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필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은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원효의 저술인『이장의(二障義)』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인간의 현존을 번뇌장(煩惱障, 심리적 장애)과 소지장(所知障, 지적 장애)의 두 가지 번뇌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다.[4] 가능태의 측면에서 인간은 누구나 불성佛性을 지녔고 따라서 누구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현실태의 측면에서 인간은 지적인 면에서든 심리적인 면에서든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특정 감정에 치우치면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하게 공감할 수 없고(번뇌장) 특정 견해에 치우치면 상대방의 견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소지장),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을 배제하려는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번뇌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바로 이 두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그렇다면 쟁론은 인간의 보편적 숙명이고 화쟁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보편적 숙명에서 벗어나는 길, 곧 해탈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논문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간행 혹은 간행예정인「한글본 한국불교전서」100권 중 원효 혹은 그와 관련된 저술의 특성과 의의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을 넘어선 새로운 문헌을 발굴한 과정, 기존의 번역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좀더 완성된 번역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서술하고 새롭게 간행된 번역서가 갖는 독자적 의미, 번역서의 간행이 갖는 연구사적 가치도 함께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한국 고대불교문헌의 번역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남겨진 과제를 고찰하겠다.

3)『菩薩戒本持犯要記』(『韓佛全』1, p.580中).
4)『二障義』(『韓佛全』1, p.787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Ⅱ.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의 번역 및 간행 현황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가운데 원효의 저술 혹은 그것과 관련된 저술은 총 11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원효의 저술들은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효의 저술로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문헌이고 둘째는 원효의 저술이지만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문헌이며 셋째는 원효의 저술은 아니지만 그 저술에 대한 주석서의 성격을 갖는 문헌이다. 이제 세 가지 범주에 의거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저술의 번역현황을 살펴보겠다.

1.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

1) 그 저술의 현황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원효의 저술은 107부 231권으로 알려져 있다.[5] 이 가운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22부이고 『한국불교전서』에는 이들 문헌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大慧度經宗要	7	解深密經疏序	13	金剛三昧經論	19	中邊分別論疏 卷三
2	法華宗要	8	無量壽經宗要	14	大乘起信論別記	20	十門和諍論
3	華嚴經疏 卷三 幷序	9	阿彌陀經疏	15	起信論海東疏 幷刊行序	21	發心修行章
4	本業經疏 卷下 幷序	10	遊心安樂道	16	大乘起信論疏記會本	22	大乘六情懺悔
5	涅槃宗要	11	菩薩戒本持犯要記	17	二障義	23	彌陀證性偈
6	彌勒上生經宗要	12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卷上	18	判比量論		

이 목록에 따르면 현재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의 저술은 총 23부이다. 이 가운데

5) 은정희, 「원효의 생애와 사상」, 『한국인물사연구』 4호(서울: 한국인물사연구회, 2005), p.161. 단 후쿠시 지닌(福士慈稔)은 "원효의 저술은 모두 62부이다."라고 하였다.[福士慈稔, 「원효저술이 한·중·일 삼국불교에 미친 영향」, 『박사학위논문』(익산: 원광대학교, 2001), pp.166-175.] 이밖에 70여부 90여권이라는 설, 100여부 240여권이라는 설 등도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대승기신론소기회본』은 별도의 저술인 『대승기신론별기』와 『기신론해동소병간행서』를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총 22부가 된다. 또 이 가운데 『유심안락도』는 위찬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실제 원효의 저술은 총 21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심안락도』는 원효의 찬술이 아니라고 해도 그 내용이 원효 사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계승인가, 개변인가의 문제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6] 또 본 문헌의 신라찬술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7] 이 책의 번역 및 간행은 본서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고 한국불교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8]

2) 그 저술의 번역 및 간행 현황

이렇게 총 22부의 저술들 가운데 분량이 적은 것들은 그 성격이 비슷한 것과 함께 묶어서 모두 9권이 간행되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라13	범망경보살계본사기(상권)	한명숙	신라20	열반종요	이평래
신라16	금강삼매경론	김호귀	신라21	이장의	안성두
신라17	대승기신론소기회본	은정희	신라22	본업경소 권하 병서 보살계본지범요기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최원섭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신라18	미륵상생경종요 무량수경종요 불설아미타경소 유심안락도 미타증성게	성재헌 이평래 김호성 한명숙 이정희	신라23	중변분별론소 제3권 판비량론 해심밀경소서	박인성 김성철 김명실(묘주)
신라19	대혜도경종요 법화종요 화엄경소 십문화쟁론	성재헌 이기운 최원섭 이정희			

6) 고익진, 「遊心安樂道의 成立과 그 背景」, 『불교학보』 13(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1976), pp.153-170.

7) 源弘之(松林弘之), 「朝鮮浄土教の研究」, 『龍谷大学仏教文化研究所紀要』 통호7(京都: 龍谷大学佛教文化研究所, 1968), pp.109-112. ; 源弘之(松林弘之), 「新羅浄土教の特色」, 『新羅佛教研究』 통호29(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pp.283-318.

8) 한명숙, 「유심안락도 해제」, 『미륵상생경종요 외』(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p.229-25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신라18은 정토관련 저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신라22는 계율관련 저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신라23은 유식관련 저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라19는 앞의 둘은 차례대로 『반야경』, 『법화경』의 종요를 서술하였고, 세 번째는 『화엄경』을 주석한 단편이며 마지막 『십문화쟁론』은 쟁론의 소지가 있는 불교이론 열 가지를 대상으로 화쟁한 것인데, 뒤의 두 가지는 일부만 남은 짧은 글이기 때문에 종요와 함께 묶었다.

2.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

원효의 저술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헌도 1부 번역·간행되었는데 『집일 금광명경소』(신라25)가 그것이다. 원효의 『금광명경소』는 현재 그 문헌이 전해지지 않지만 후대의 여러 문헌에서 인용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고 그 단편을 모아서 번역·간행한 것이다. 한명숙이 편찬과 번역을 함께 진행하였다.

3.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에 대한 주석서

원효의 저술이 아니고 따라서 『한국불교전서』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헌이 1부 번역·간행되었는데 『지범요기조람집』(신라24)(이하 『조람집』으로 약칭)이 그것이다. 본서는 원효의 『요기』에 대한 일본의 학승 신엔(眞圓)의 주석서로 한명숙이 번역하였다.

Ⅲ.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 번역서의 특성 및 연구사적 가치

이번 장에서는 역시 분류한 세 가지 범주에 의거하여 각 번역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번역서의 간행이 갖는 연구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단 연구현황에 대한 조망은 모든 번역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자가 번역하고 연구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1.『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

1) 기출간 번역서와의 차별성

이 범주에 해당하는 원효의 저술은 대부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9] 그렇다면 이미 번역된 책과 불교학술원에서 번역·간행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의 간행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원문의 철저한 교감(校勘) :『사기』의 사례

신라문헌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오면서 문헌에 따라 그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필연적으로 오자(誤字)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들에 대한 교감을 통한 정본화작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작업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다. 본 번역서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오자를 보다 철저하게 교감하고 그 근거를 상세하게 밝혔다. 필자가 번역한『범망경보살계본사기』(이하『사기』로 약칭함)의 사례를 통해 오자의 사례 및 그 교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한국불교전서』에 수록하면서 발생한 오자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것은『속장경(續藏經)』제1편 95투(套) 제2책(冊)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낱낱이 대조한 결과『속장경』을 잘못 옮긴 곳을 1회 발견하였다.

<사례>

【기】所言應身者。此即分1)門中應身。

1) ㉮『속장경』에 따르면 '分' 뒤에 '身'이 누락되었다.[10]

B. 전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

『사기』의『속장경』수록본과 그것을 저본으로 한『한국불교전서』수록본에는 많은 오자

9) 김종인,「원효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철학사상』23(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pp.339-342. 본 논문에 따르면『사기』와 단편만 남은 것은 1회, 그 나머지는 2회에서 9회까지 번역되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에서 원효의 저술일부를 번역한『정선 원효』(2009)를, 울산대학교 원효학토대연구소에서는 박태원이『열반종요』(2019)를 번역·간행하였다.

10) 한명숙 역,『범망경보살계본사기』(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6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가 발견되기 때문에 근대에 발굴된 필사본을 구입하여 대조하였는데 이 사본 역시 『속장경』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서 교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만 『사기』에서 현존하는 경론을 인용한 문장의 경우는 실제 해당 경론을 대조하여 교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교감한 사례를 통해 그 오자의 비율을 가늠할 수 있다.

<사례>: 『사기』의 『화엄경』 인용문과 『대정장』 수록 『화엄경』(『大正藏』9, p.412a)의 대조교감

【기】 華嚴經云。佛子當知。有須彌山微塵等風輪。持此蓮花藏莊嚴世界海。最下風輪。名曰平等。彼持一切寶2)明。3)以4)上風輪。名種種寶莊嚴。持清淨光寶池。5) 乃至最上風輪。名勝藏。持一切香水海。彼香水海中。有一6)大蓮華。名香幢光莊嚴。持此蓮華藏莊嚴世界海。邊。7) 有金剛山。周迊8)圍繞。

2) ㉠ 『화엄경』에 따르면 '寶' 뒤에 '光'이 누락되었다. 3) ㉠ 『화엄경』에 따르면 '明' 뒤에 '地'가 누락되었다. 4)㉠ 『화엄경』에 따르면 '以'는 '次'이다. 5) ㉠ 『화엄경』에 따르면 '池'는 '地'이다. 6) ㉠ 『화엄경』에 따르면 '一'은 연자이다. 7) ㉠ 『화엄경』에 따르면 '邊' 앞에 '此世界海'가 누락되었다. 8) ㉠ 『화엄경』에 따르면 '迊'은 '匝'이다.[11]

『한국불교전서』를 기준으로 네 줄 분량의 글에서 모두 일곱 곳의 오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문장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글자이다. 이러한 비율을 『사기』 전체로 확장하면 그 오자의 비율을 추론할 수 있는데 실제 번역하면서 오자로 추정되는 글자를 무수히 발견하였다. 본서에 대한 원문 교감은 원효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전문성을 갖춘 각주 : 『사기』의 사례

본문에 대해서 전문적인 각주를 달았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이지 않는 불교 전문용어의 뜻을 낱낱이 밝혔다. 둘째, 본문에서 인용한 경론의 출처를 현존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고는 모두 밝혔다. 셋째, 본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혹운(或云)", "일운(一云)"이라는 형식으로 인용한 사상 혹은 사상가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출처와 이름을 모두 밝혔다. 넷째, 해당저술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각주는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확장적 연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문헌 자체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11) 한명숙 역, 앞의 책, p.6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오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그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사기』, 찬술 시기 문제

『사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 찬술시기에 대한 것이다. 남동신은『사기』는 그 체재가 초기 저술인『이장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초기저술이라고 하였고[12] 후쿠시 지닌은 "『사기』에는 신역경론(新譯經論) 중 후기에 속하는『성유식론』(659년 한역)이 인용되어 있다. 그러므로『사기』는 원효의 후기의 저술이다."[13]라고 하였다. 후쿠시 지닌은『사기』의 어떤 문장이『성유식론』 인용문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 논서의 인용을 근거로 제시할 경우 대체로 사실에 의거한 것이므로 비판적 검토의 과정이 없이 확정적인 근거로 받아들이게 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B.『사기』, 후기 찬술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필자는『사기』를 번역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쿠시 지닌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14] 첫째,『사기』에는『성유식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둘째,『사기』에 인용된 경론의 성격을 검토하면 대부분 구역을 인용하였다. 셋째, 신역에 속하는『유가사지론』(648년 한역)을 인용한 것 가운데 1회는 구체적이지 않고 나머지 1회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이고 내용도 매우 압축적이다. 중기 저술인『대승기신론별기』는『유가사지론』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인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사기』는『별기』를 찬술하기 이전에 지은 것, 바로 초기의 저술로 보아야 한다.

C. 사례 :『사기』, 후기 찬술설의 반론가능성을 각주를 통해 밝힘

기존 연구에 대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필자는『사기』를 번역하면서 후쿠시 지닌이『성유식론』의 글이라고 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을 찾아 해당 각주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또 그 문장이『유가사지론』에 의거할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함을 밝혔다.

12) 남동신,「원효의 계율사상」,『한국사상사학』 제17집(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01), p.262.

13) 福士慈稔, 앞의 논문, pp.184-185.

14) 한명숙,「元曉『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진찬여부 논쟁에 대한 연구(2)-진찬의 근거를 제시함,『불교학보』 75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pp.151-176. 이하는 본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사례>

【기】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뢰야식을 명근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뢰야식의 특별한 상태 가운데 임시로 세워서 이것을 명근이라 한다."170)라고 했다. 170) 『成唯識論』 권7(대정장31, p.41a12)에서 "명근은 다만 본식本識(아뢰야식)에 있는 친종親種자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 임시로 세운 것이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命根。但依本識親種分位。假立。非別有性。)"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단 만약 『사기』가 원효의 초기 저술이라면 『성유식론』이 아직 한역되지 않은 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유식론』과 문장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가사지론』 권56(T30, 607b15)에서 명근의 건립을 논한 것과, 같은 책 권100(T30, 879a10)에서 심불상응법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 임시로 세우는 것을 논한 것을 종합하여 창출한 문장일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15)

필자는 만약 『사기』가 초기의 저술이라면 후쿠시 지닌이 『성유식론』의 인용문이라고 주장한 글을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기』를 번역함으로써 그 각주에서 해당문장이 『성유식론』이 아닌 『유가사지론』에 의거한 글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6)

③ 새로운 문헌발굴 성과의 반영 : 『판비량론』

『판비량론』은 현장(玄奘)이 번역한 『인명입정리론』·『인명정리문론』 등의 인명학(因明學)을 익힌 후 그 원류인 현장의 학문을 비판한 논쟁의 책으로 동아시아 학승들의 저술 여러 곳에 인용될 만큼 중요한 글이다.17) 이 책은 에도시대(1603-1867) 말기 산실되었고 후대에 필사본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사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뛰어난 성과를 이룬 김성철이 현재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것 이외에도 2017년에 발굴된 네 가지의 단편을 추가하고 또 동아시아 불교문헌에 인용된 글을 추가하여 보다 완성된 형태의 원문을 편찬하고 그에 대한 번역서를 간행하였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서 본 번역서는 총 9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편-제3편은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원문을 번역한 것이고 제4편은 오치아이 히로시 소장본이며, 제5편은 고토미술관 소장본이고, 제6편은 바이케이 구장본(舊藏本)이며, 제7편은 미쓰이 기념관 소장본이고, 제8편은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본으로 2017년 발굴된 문헌이며, 제9편은 동아시

15) 한명숙 역, 앞의 책, p.144. 각주 170번과 그 해당 본문을 참조할 것.
16) 한명숙, 앞의 논문, pp.163-166. 이러한 문제의식을 심화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를 시도한 글이다.
17) 김성철, 「판비량론 해제」, 『중변분별론소 제3권 외』(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9), pp.171-20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아 불교문헌에 인용된 것을 발췌한 것이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의 일부로 번역, 간행된 김성철의『판비량론』은 현시점에서는 본서의 실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자 번역서라고 할 수 있다.

④ 기(旣)번역자의 재번역을 통한 완성도 증대 :『기신론소별기』

『기신론소별기』는 원효의 대표 저술 중 하나이다. 본서에 나타난 원효의 사상의 성격은 근현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탐구한 연구주제 중 하나였고 다양한 연구성과가 배출되었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협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18]

본서에 대한 최초의 전문번역은 은정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번역이 이루어졌지만 괄목할 만한 번역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9] 따라서「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의 번역은 기번역자인 은정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은정희는 이미 출간되었던 번역서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고 불교문헌 데이터 베이스가 다양하게 구축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에는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글에 대해서도 그 출처를 새롭게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번역서보다 완성도가 높은 번역서가 탄생하였다.

⑤ 역자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번역내용의 지평 확장 :『이장의』

『이장의』는 대승불교에서 설한 번뇌설에 대한 원효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 책은『기신론소별기』를 번역한 은정희에 의해 2004년 번역·출간되었는데[20] 이번에 간행된「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이장의』의 역자는 인도불교 유식학을 전공한 안성두이고 증의는 기번역자로 동아시아불교 전공자인 은정희가 담당하였다. 본서의 의미는 안성두가 해제에서 "그(원효)가 인용한 문헌의 의미를 가능한한 원전의 맥락에서 번역하려고 시도했다."[21]라고 한 글에서 드러난다. "원전의 맥락"이란 바로 본서에 인용된 유식논서의 산스크리트문을 참조하여 한역에 의해 해독이 어려워진 문장에 대해 그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 역서의 각주에서 유독 산스크리트어로 된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 안성두는 번역을 하면서 실제로 은정희의 번역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각주를 통해서 상세히 밝

18) 이수미,「동아시아에서의『대승기신론』해석의 전개」,『철학사상』60(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6), pp.39-74. ; 석길암,「근현대 한국의『대승기신론소』·『별기』연구사」,『불교학리뷰』2(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7), pp.9-39.

19) 김종인, 앞의 논문, pp.347-348

20) 은정희 역,『이장의』(서울: 소명출판사, 2004).

21) 안성두,「이장의 해제」,『이장의』(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9), p.2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혔다. 본 번역서는 동아시아불교 전공자와 인도불교 전공자의 연구성과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 연구사적 가치 고찰 : 『사기』를 중심으로

이미 서술한 것처럼 원효의 저술 중 하나인 『사기』의 연구현황을 고찰하여 본번역서가 갖는 연구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기』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원효의 진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둘째는 진찬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다시 그것이 쓰여진 시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후자와 관련된 연구현황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관련연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겠다.

① 『사기』, 그 위찬의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명숙(2015)[22]

『사기』가 원효의 진찬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위찬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연구 및 발표되었지만 그에 상응하여 다시 위찬의 증거를 제시한 글이 발표됨으로써, 『사기』는 원효가 찬술한 책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지는 형국에 놓여져 있었다. 필자는 『사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서 이들 논문에서 위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반론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논문을 발표하였다.

첫째, 기무라 센쇼는 『사기』 위찬설의 아홉 가지 근거(1번~8번)를 제시하였고[23] 최원식(9번)[24]과 남동신(10번)[25]이 각각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26] 둘째, 요시즈 요시히데는

22) 한명숙, 「원효『범망경보살계본사기』의 진찬여부 논쟁에 대한 연구(1):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불교연구』 42(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15), pp.187-220. 이하는 본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23) 木村宣彰, 「菩薩戒本持犯要記について」, 『印度佛教學研究』 28巻2号(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会, 1980), p.306. 1번: 『요기』와 『사기』에 취지가 다른 것이 보인다./ 2번: 『사기』라는 제목은 원효의 여타저술에는 없다./ 3번: 원효의 다른 저술에 『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4번 : 경록에 『사기』라는 책이 나오지 않는다./ 5번 : 지은이를 "曉公"이라 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원효라고 볼 수 없다./ 6번: 원효는 『금광명경』을 『금고경』이라고 부르는데 『사기』에서는 『금광명경』이라고 하였다./ 7번: 『사기』에 나오는 "一云"이라는 용례는 다른 저술에는 나오지 않는다./ 8번: 삼론학의 용어, 사유체계가 곳곳에 보이는 것은 원효 여타 저술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24) 崔源植, 「新羅 菩薩戒思想史 研究」, 『박사학위논문』(서울: 동국대학교, 1992), p.52. 9번: "『요기』는 제1불살계~제4망어계를 "共小之重", 제7자찬훼타계 · 제8간석가훼계 · 제9진타결한계 · 제10방삼보계를 "不共之重"이라 하였다. 『사기』는 제7계를 "대승과 소승이 함께 배우는 것(大小共學)", 제8계 · 제9계 · 제10계를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은 것(大小不同)"이라 했다. 제7계를 『요기』는 "不共之重"이라 하고 『사기』는 "大小共學"이라 하였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기무라 센쇼가 제시한 근거 중 네 가지(3번-6번, 8번)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였고[27] 김상현(4번)[28]과 남동신(3번, 7번)도 각각 그 반론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찬의 열 가지 근거 중 여섯 가지 근거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졌다. 셋째, 한명숙은 위찬의 열 가지 근거 중 나머지 네 가지(1번, 2번, 9번, 10번)[29]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30] 이렇게 『사기』의 온전한 번역을 통해서 『사기』 위찬설의 열 가지 근거는 모두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② 『사기』, 그 위찬의 새로운 근거 제시 : 최유진(2016)[31]

최유진은 한명숙이 2015년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일부 주장은 수용하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먼저 이미 학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된 열 가지 견해 중 4번과 7번에 대한 보충설명을 통해 위찬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한명숙이 제기한 반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곧 9번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반론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 문장의 뉘앙스를 보면 『요기』의 "불공지중"은 대승과 소승의 차이성을 강조하고 『사기』의 "대승공학"은 대승과 소승의 공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용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10번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남동신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범망경』의 자찬훼타계를 풀이하면서 『요기』와 『사기』가 달리 해석한 것, 『범망경』의 "계광戒光"을 풀이하면서 『요기』는 계를 더러운 것과 상대되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풀이하고 『사기』는 "계는 더러움을 떠나고 맑고 깨끗하다."고 하여 청정함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등을 새로운 위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32]

---

25) 남동신, 앞의 논문, pp.251-282. 10번 : 『사기』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에 각각 不空如來藏과 空如來藏을 대응시키고 있다. 『별기』에서는 거꾸로 '진여문=공, 생멸문=불공'의 일면성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은 모두 불공을 설한 것이며, 여래장은 생멸문에 포섭된다.

26) 이상 열 가지 근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명숙의 앞의 논문(2015) 중 「Ⅱ. 사기 진찬논쟁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연대기적 고찰」(pp.191-200)을 참조할 것.

27) 吉津宜英, 「法藏以前の『梵網經』諸註釋書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第四十七號(京都: 駒澤大學, 1989), p.116.

28) 김상현, 『원효연구』(서울: 민족사, 2000), pp.181-183.

29) 남동신, 앞의 논문, pp.251-282.

30) 자세한 내용은 한명숙의 앞의 논문(2015) 중 「Ⅲ. 사기 진찬논쟁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비판적 검토」(pp.200-214)를 참조할 것.

31) 최유진, 「범망경보살계본사기의 저자 문제」, 『동아시아불교문화』25집(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pp.201-226. 이하의 글은 본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32) 한명숙의 두 번째 논문(2016)에는 반론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반론을 제시하겠다. 첫째, 『요기』는 대승과 소승의 차이성을, 『사기』는 대승과 소승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차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③『사기』, 그 진찬의 새로운 근거 제시 : 한명숙(2016)[33]

필자는 두 번째 논문에서 주로 사상의 일관성 여부를 통해 진찬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곧『사기』에서는『범망경』중계(重戒)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이하면서 별도로 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輕非)이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원리주의를 완화한 것, 달기보살(達機菩薩)은 중생구제라는 목적을 지녔다면 중계를 위반하였어도 죄가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여 동기주의를 중시한 것, 불퇴위(不退位)에 해당하는 보살의 계위에 대한 경과 논의 여러 가지 다른 설을 서로 통하게 하고 노사나가 법신(法身)·응신(應身)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문제를 화쟁한 것 등은 모두 원효의 저술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상 혹은 사유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사기』와 원효의 또다른 저술인『화엄경소』는 교판론(敎判論)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은『사기』라는 책에 대한 필자의 번역서가 간행되기 전과 그 이후의 연구현황을 검토한 것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발생하게 된 것은, 원전에 대한 해석의 오류, 원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 원전에 나오는 인용경론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신라의 문헌 중 다수의 복원본을 번역하고 해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논문을 살펴보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원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의거하여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34] 완성을 지향하는 번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는『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원효의 저술이 수록

이가 있다는 주장은,『사기』곳곳에서 범망계와 소승계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분을 일반화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찬술시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책에 대해 사상적 모순이 아닌 서술의 방식이나 내용의 차이를 근거로 다른 저자의 저술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한명숙이 10번의 반론 과정에서『석마하연론』을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한 최유진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33) 한명숙, 앞의 논문(2016), pp.151-176.

34) 한명숙, 앞의 논문(2015)과 한명숙,「의적의『무량수경술의기』와 경흥의『무량수경연의술문찬』찬술의 선후문제에 대한 연구(1) :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조사상』55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9), pp.135-166는 이러한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되어 있는데『집일 금광명경소』가 그것이다. 원효의 저술이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는『금광명경소』라는 책을 후대의 문헌에서 그 인용문을 편찬하고 번역한 책이다. 본서의 편찬과정을 서술하여 향후 이루어질 집일본 편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본서의 연구사적 의의를 고찰하겠다.

1)『집일 금광명경소』편찬 과정

『집일 금광명경소』의 편찬은 김상현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다.[35] 일본의 학승 간교(願曉)가 찬술한『금광명최승왕경현추』(이하『현추』로 약칭)에서 원효의『금광명경소』와 관련된 글을 발췌하였다. 주로 직접인용문을 발췌하였지만 간접인용문도 일부 발췌하였고 모두 228회 12,000여 자로 이루어졌다. 이 집일본은『현추』에 나오는 원효의 글 가운데 누락된 것이 많은 것, 대상문헌이『현추』에만 한정되어 포괄성을 결여하였다는 것, 인용문을 잘못 끊은 사례가 많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 작업은 후쿠시 지닌에 의해 이루어졌다.[36] 19세기 말까지 일본불교 각 종파의 문헌을 검토하고 한국 출신 학승의 이름과 한국에서 찬술된 문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모두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에서 전승되어 온 문헌 전부를 대상문헌으로 삼고 33가지 범주를 설정하여[37] 발췌하였고 그 결과 총 8종의 문헌[38]에서 563개의 인용문을 추출하였다.『현추』에서 517개를 발췌하였고 나머지는 7종의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집일문도 원효의 글이 아닌 것을 발췌한 사례가 있다는 것, 원효의 글인데 누락된 사례가 있다는 것, 간접인용문을 발췌하면서 문장을 잘못 끊어서 원효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집일 금광명경소』의 원문 편찬은 선행작업의 성과를 반영하고 그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현추』에서 후쿠시 지닌의 집일문에서 누락된 글 10개를 새롭게 찾아서 총 573개에 달하는 원효의 글을 집일하였다. 둘째, 이 집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금광명경』해당처에 본문과 함께 배열하였다. 셋째, 원

35) 김상현,「輯逸金光明經疏」,『동양학』제24집(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4), pp. 259-284.

36) 福士慈稔(2011~2013),『日本仏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仏教認識に関する研究』제1권(2011)·제2권상(2012)·제2권하(2012)·제3권(2013)(山梨県: 身延山大学 東アジア仏教研究室).

37) 예를들어 "曉云", "曉言" 등의 33가지 인용형식을 설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원효의 글을 추출하였다.

38) 安澄(763-814)의『中論疏記』등의 여덟 가지 문헌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천적으로 잘못 추출한 것은 삭제하고 인용문장을 잘못 끊은 것은 보충하여 집어넣었으며 중간을 끊어서 전후의 문장을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추출한 인용문은 원효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후로 문장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후쿠시 지닌의 집일문 31,000여 자에 14,000여 자를 추가하여 총 45,000여자의 집일본이 완성되었다.[39]

2) 『집일 금광명경소』 편찬 및 번역의 의의

『금광명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7세기 중기 혹은 말기 경이다. 신라 시대 원효·승장(勝莊)·경흥(憬興)·둔륜(遁倫)·태현(太賢) 등이 본경에 대한 주석서를 남겼지만 현재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한 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찬술된 『금광명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인 원효의 『금광명경소』를 집일문의 형태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원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광명경』은 대승불교의 불신론(佛身論)인 삼신설(三身說)을 설한 대표 경전 중 하나로 많은 동아시아 학승들에 의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본경의 삼신설에 대한 해석은 각 학승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수미는 원효·정영혜원(淨影慧遠)·자은기(慈恩基)의 삼신설의 차이를 고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서두에서 원효가 한불교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원효의 불신관 혹은 삼신설에 대한 연구는 그 논문이 총 다섯 편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현실을 지적하였다.[40] 그리고 이 중 김상현의 것을 제외하고는 『금광명경소』에 나타난 원효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원효의 불신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것은 바로 연구대상문헌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집일 금광명경소』는 방대한 분량의 원문을 편찬하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향후 원효의 불신관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광명경』「제병품(除病品)」에는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병과 그 병을 다스리는 법을 게송에 의해 함축적으로 설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본품에 대한 원효의 해석은 한의학 관련

39) 『집일 금광명경소』의 편찬과 관련된 내용은 한명숙에 의해 발표된 두 편의 논문, 「元曉『金光明經疏』輯逸의 현황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Ⅰ), 『보조사상』 48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7), pp.259-288과 「元曉『金光明經疏」輯逸의 현황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Ⅱ)」, 『보조사상』 50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8), pp.120-147을 정리한 것이다.

40) 이수미, 「『金光明經』三身說에 대한 元曉의 이해- 慈恩基와 淨影慧遠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한국불교학』 제82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7), pp.7-34. 본 논문에서 이수미는 김상현을 비롯하여 총 다섯 편의 논문을 제시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학자들에 의해 주목받아서 이 글을 통해 신라 불교의학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원효의 해석은 중국에서 유래한 한의학 이론에 바탕을 두었고 이론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지만[41] 최근에는 "원효의 해석은 인도 불교의학과 중국의학과의 화해를 시도하였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42] 후자는 "화쟁"이라는 원효의 보편적 사유체계에 의해 그의 의학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일본에서 보이는 일반적 현상인 오자가 「제병품」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오자를 교감하지 않고 본서를 연구할 때 오류를 내포한 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집일본은 대부분 후대의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전사과정에서 많은 오자를 내포하고 있다. 『집일 금광명경소』에서 많은 글자를 바로 잡았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교감하지 못한 글자도 존재한다. 보다 확충된 분량의 집일본이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다시 교감의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완성된 형태의 저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 저술에 대한 주석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는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원효의 저술도 아닌 책이 1권 수록되어 있는데 『조람집』이 그것이다. 본서는 『범망경』과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대승보살계를 중심으로 지범(持犯)의 요체를 서술한 원효의 저술 『요기』에 대한 주석서이다. 『조람집』은 9-19세기까지 일본불교 각 종파 25명의 승려에 의해 30부의 문헌에 인용되어 있을 만큼 그 영향이 지대하였다.[43] 본서에 대한 주석서는 현존하는 것 3부와 일실된 것 2부를 합쳐 모두 5부가 있는데[44] 『조람집』은 현존하는 세 가지 주석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 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기』에서는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서술하

41) 여인석 외(1995),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 원효의 경우」, 『의사학』 제7권 2호(서울: 대한의사학회, 1995), pp.159-164.

42) 오재근, 전종옥, 신동원. 「신라 승려의 『금광명경』 「제병품」 주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고대 불교의학」, 『의사학』 제25권 제3호(서울: 대한의사학회, 2016), pp.329-372.

43) 김병곤,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가 일본불교에 미친 영향」, 『원효, 문헌과 사상의 신지평』(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0), pp.296-297.

44) 김병곤, 앞의 책, pp.291-292. 1. 賴喩 『持犯要記略鈔』(失)/2. 凝然 『持犯要記略述』(失)/3. 眞圓 『조람집』(存)/4. 仲範 『持犯要記俗書勘文抄』(存)/5. 湛睿 『持犯要記見聞集』(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것이 많은데 『조람집』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낱낱이 밝혔다. 둘째, 『요기』 본문에서 축약적으로 인용한 경론의 출처를 낱낱이 밝혔다. 셋째, 『요기』의 글 중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 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학승의 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해석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쟁점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확장적 연구의 길을 열어 준다.

본서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인 김상현의 논문[45]에 대해 후쿠시 지닌은 "『조람집』에 대한 김상현의 연구는 뛰어나고 덧붙일 부분이 없다."[46]라고 평가하였지만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조람집』은 김상현의 논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러 측면에서 수정, 보완하고 이를 각주를 통해 밝히고 있다.[47]

본번역서의 출간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의 시도를 가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한국불교 고전문헌의 번역, 그 남겨진 과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가 간행됨으로써 한국불교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더 견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번역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문문헌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교문헌은 다양한 전문용어를 내포하고 있고 대부분이 주석서인 신라의 문헌은 축약된 논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논리구조는 "A는 이렇게 말했다. B는 이렇게 말했다. A와 B는 서로 모순된다. 이 모순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A와 B가 모두 타당하다면 양자의 모순은 또 다른 곳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A는 경에 의거한 주장이고 B는 논에 의거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경과 논은 또 왜 이렇게 다르게 설하였는가? 각각 논의의 주제가 다르거나 가르치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글은 한문에 능통한 것, 해당문헌에 대한 전공자라는 것만으로는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문에 능통하고 해당문헌의 전공자이면서 이렇게 심도있는 철학적 논의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사유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불교학술원 내의 한문아카데미

45) 김상현, 앞의 책, pp.181-183.
46) 福士慈稔, 『新羅元曉研究』(東京 : 大東出版社, 2004), p.423.
47) 한명숙, 「지범요기조람집 해제」, 『지범요기조람집』(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9), p.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와 한문불전번역학과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이러한 전문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일실된 한국 학승의 저술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 전해지는 원효의 저술이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원효 사상의 전모가 확인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이것이 보다 많은 문헌이 발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차선책으로 『집일 금광명경소』처럼 현재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문헌을 집일본의 형태로라도 꾸준히 편찬·번역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근자에 한국 학승의 찬술설이 제기된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그 확정적 지위를 확보한 저술은 『한국불교전서』에 입장해야 한다.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48]·『기신론일심이문대의(起信論一心二門大意)』[49] 등이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문헌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헌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한국불교사상의 지평이 넓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 학승의 저술에 대한 동아시아 학승의 주석서를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천학은 한국불교가 해석되고 재탄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국불교문헌에 대한 외국인의 주석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외연을 넓혀나갈 것을 제안하고 이들 문헌의 현황을 진술하였다.[50] 이들 문헌을 입수하고 번역하는 것은 한국불교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의 구체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48) 최연식, 「백제찬술문헌으로서의 『대승사론현의기』」, 『한국사연구』 136(서울: 한국사연구회, 2007), pp.1-27. ; 김성철, 「<大乘四論玄義記>는 백제에서 찬술되었나?: 최연식 교수의 '백제 찬술설'에 대한 반론」, 『한국사연구』 137(서울: 한국사연구회, 2007), pp.337-362. ; 최연식, 「<大乘四論玄義記> 百濟撰述 再論 : 김성철 교수의 반론에 대한 비판」, 『한국사연구』 138(서울: 한국사연구회, 2007), pp.255-289.

49) 최연식, 「신라불교문헌으로서의 『기신론일심이문대의』」, 『불교학연구』 13(서울: 불교학연구회, 2006).

50) 김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70(한국서지학회, 2017), pp.203-22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참고문헌〉

1. 원전자료

『菩薩戒本持犯要記』,『韓佛全』1
『二障義』,『韓佛全』1

2. 사전류 / 단행본

고영섭,『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서울: 예문서원, 2002.
福士慈稔,『新羅元曉研究』, 東京 : 大東出版社, 2004.

3. 논문

고영섭,「한국 고대불교 연구의 성과와 과제」,『한국불교학』68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3, pp.406-409.
김종인,「원효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철학사상』23,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pp.339-342.
김천학,「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서지학연구』70, 수원: 한국서지학회, 2017, pp.203-225.
석길암,「근현대 한국의『대승기신론소』·『별기』연구사」,『불교학리뷰』2,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7, pp.9-39.
이수미,「동아시아에서의『대승기신론』해석의 전개」,『철학사상』60,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6, pp.39-74. ;
_____,「『金光明經』三身說에 대한 元曉의 이해- 慈恩基와 淨影慧遠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한국불교학』82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7, pp.7-34.
여인석 외(1995),「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 원효의 경우」,『의사학』제7권 2호, 서울: 대한의사학회, 1995, pp.159-16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오재근, 전종옥, 신동원.「신라 승려의『금광명경』「제병품」주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고대 불교의학」,『의사학』제25권 제3호, 서울: 대한의사학회, 2016, pp.329-372.

은정희,「원효의 생애와 사상」,『한국인물사연구』4호, 서울: 한국인물사연구회, 2005, p.161.

최유진,「범망경보살계본사기의 저자 문제」,『동아시아불교문화』25집,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pp.201-226

한명숙,「원효『범망경보살계본사기』의 진찬여부 논쟁에 대한 연구(1):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불교연구』42,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15, pp.187-220.

_____,「元曉『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진찬여부 논쟁에 대한 연구(2)-진찬의 근거를 제시함,『불교학보』75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pp.151-176.

_____,「元曉『金光明經疏』輯逸의 현황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Ⅰ),『보조사상』48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7, pp.259-288.

_____,「元曉『金光明經疏」輯逸의 현황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Ⅱ)」,『보조사상』50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8, pp.120-147.

木村宣彰,「菩薩戒本持犯要記について」,『印度佛敎學硏究』28卷2号, 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会, 1980, p.306.

吉津宜英,「法藏以前の『梵網經』諸註釋書について」,『駒澤大學佛教學部硏究紀要』第四十七號, 京都: 駒澤大學, 1989, p.11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Abstract>

The Translation State of Wonhyo's Writing and Its Research Value:

Connecting with the Meaning of 100 Volumes of Hangeulbon Hangukbulgyojeonseo Published by Academy of Buddhist Studies

Han, Myung-Sook

This thesis considers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Wonhyo-related writing among the 100 Volumes to publish and to be published by the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modern meaning for the translation publication in harmonizing disputes, which is the universal way of thought being included in the writing. "Why should hwajaeng be done?," which, to date, has not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harmonizing disputes of Wonhyo, was also address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Buddhist meaning of harmonizing disputes is not to commit a grave sin and to be free from hindrance of defilements and of the known.

Next, 11 volumes of the Wonhyo-related writings included in Hangeulbon Hanguk-bulgyojeonseo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ir trait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each were revealed. It was determined that nine volumes of Wonhyo writings are included in Hangukbulgyojeonseo. This was found to differ from the existing translation in terms of the thorough correction of the original text, footnotes, the application of new bibliographies, the reflection of research results of the majors in Indian and Korean Buddhism, and so on. It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is trait can provoke new research. For example, in the case of Beommangyeongbosalgyebonsagi, the writer and the writing period have been questioned, but through this translation. It could be verified that Choi, You-Jin, and Han, Myung-Sook presented a developmental discussion. The second result is that one writing of Wonhyo not included in Hangukbulgyojeonseo, Jipil-Geumgwangmyeonggyeongso, has been published. The translator compiled and translated the original of Geumgwangmyeonggyeongso,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

which is not handed down in person. It is expected that this text will help Wonhyo's theory of the Buddha's body and the traits of Shilla medical science to be studied in the future. Third, one translation of a commentary on Wonhyo writing has also been published, known as Jibeomyogijoramjip. This text is the commentary of Shinen for Bosalgyebonjibeomyogi. It is expected that this text will highlight the controversial issue in relation to Bosalgyebonjibeomyogi and pave the way to expanding research on it.

Lastly, this study suggests remaining issues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m. First, there is a need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Second, the writings of learned monks have to be discovered, though they are not being handed down nowadays. In addition, Jipilbon has to be made, such as Jipil-Geumgwangmyeonggyeongso. Third, research on the bibliographies in which it has been raised that Korean learned monks are supported consistently, and through this research, the writing which established the status should entry into Hangukbulgyojeonseo. Fourth, Korean Buddhism has to be extended externally by discovering and researching the commentary text of those in East Asia by Korean learned monks.

• **Keywords**

Hangeulbon Hangukbulgyojeonseo, Wonhyo, The Buddhist meaning of Harmonizing Disputes, Beommangyeongbosalgyebonsagi, Fukushi Jinin, Jipil-Geumgwangmyeonggyeongso, Jibeomyogijoramjip.

논문접수일: 2021년 4월 5일, 심사완료일: 2021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0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0:56(KST)